

지역 현안 해결 국비 확보 총력

최훈식 장수군수, 국회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지정·적극 지원 요청

최훈식 장수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지정을 비롯한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도 중점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아 총력 대응을 펼쳤다.

이날 최 군수는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기후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진성준 의원을 차례로 만나 장수군의 주요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과 국회 단계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장수군 방문단은 박희승 예결위 의원, 윤준병 농해수위 간사, 김교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원택 농해수위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지역 현안을 설명했다.

특히 군은 최근 국회 농해수위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크게 증액되면서 기존 선정 지역 외에 추가 시범지역 지정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예결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장수군은 이미 정책적 준비와 주민 공감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시범사업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라며 장수군의 추가 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훈식 장수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지정을 비롯한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도 중점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아 총력 대응을 펼쳤다. 사진 왼쪽부터 최훈식 장수군수,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와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장안산 대규모 산림복원사업 등 주요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또한, 지역 생활여건과 직결되는 △금강의 국가하천 승격과 △동화댐의 댐건설관리법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장수군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고,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의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지정을 비롯한 지역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는 안정적 재원 마련 기반이자 지역 발전을 좌우할 변수임이다”며 “국회 심사가 이어지는 연말까지 중앙부처 및 국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펼쳐 농어촌 기본소득을 비롯한 각종 지역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국비 확보 막판 총력전

국회 찾아 핵심사업 적극 건의

무주군이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18일 국회를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정부 예산안 반영을 촉구했다.

무주군이 중점적으로 건의한 사업은 △무주 폐기물매립시설 3단계 확장, △덕유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건립 등이며, 이와 함께 금강수계 환경기초시설 사업의 기금 증액도 요청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폐기물매립시설 확장 사업은 안정적 폐기물 처리 체계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장기 인프라 사업이다. 덕유산 생태탐방원은 ‘자연특별시 무주’ 전략을 뒷받침하는 생태·치유관광 중심시설로, 지역발전의 든든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강수계 환경기초시설 조성은 하수처리구역 정비와 수질 개선, 환경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황인홍 무주군수는 18일 국회를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정부 예산안 반영을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황인홍 무주군수,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다.

이날 황인홍 무주군수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기후환경예산과장 등을 연이어 만난 자리에서 “해당 사업들은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생태·

환경 기반 확충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과제”라며 “자연특별시 무주군이 청정자연을 지키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국비 반영에 적극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국 송별식

진안군, MOU 체결국 필리핀 계절근로자 74명 단체 출국

진안군은 18일,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에서 MOU 체결국인 필리핀 계절근로자 74명의 단체 출국을 격려하며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힘쓴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국하는 필리핀 계절근로자(E-8)들은 최대 8개월 동안 관내 농가와 계약을 체결해 인삼, 수박, 고추, 배추, 상추, 토마토 등 주요 작목의 농작업에 참여하며, 영농 적기 인력 수급에 큰 힘을 보탤다.

군은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올해는 MOU 체결국 필리핀에서 490명,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281명 등 총 771명의 근로자를 226농가에 배치했다.

간헐적·단기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투입된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11월 말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쿨밸리페스티벌 결과보고회

장수군은 지난 17일 간부회의실에서 이정우 장수부군수 주재로 ‘제3회 장수물밸리페스티벌’ 및 ‘제19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추진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두 축제의 전반적인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 사항을 분석하며, 향후 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환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총평과 함께 내년도 축제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토론이 이어져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대표축제인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는 2024~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로 선정되어 이미 평가를 완료했으며, 2026년에는 현행축제로의 진입이 기대되고 있다.

제3회 장수물밸리페스티벌은 축제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겨울철 폭설·한파 대비 농작물 기술 지도

무주군은 폭설과 한파로 인한 농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목별 맞춤형 기술 지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지도·연구직 공무원과 농업인상담소장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지도반을 편성하고, 오는 12월 5일까지 과수, 인삼, 월동작물, 시설재배 작물별 점검과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과수는 방풍망 제거 및 나무밀동 보존 요령 등을 지도하며 △인삼은 해가림 차광막 걷기, 습해 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 등의 활동을 벌인다.



또한 △마늘과 양파 등의 월동작물은 보온피복 자재 덮기, 주요 병해 방제 등을 지도하고 △시설재배 작물은 쫓아진 비닐 보수, 노후시설 비닐목보강, 외부 차광막 걷기 등을 진행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어르신 고혈압·당뇨 진료비·약제비 지원 '호평'

진안군은 65세 이상 군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고혈압·당뇨병으로 등록해 치료받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 만성질환으로, 치료가 미흡할 경우 뇌졸중·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약물치료와 더불어 식습관 개선, 규칙적 운동, 정기적인 혈압·혈당 점검이 필수적이다.

지원 대상은 진안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등록된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진안군 소재 의료기관 진료료를 받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덕유산국립공원 특별전시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길선)는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과 협력하여 ‘사라져가는 생명, 함께 지켜요’ 특별전시회를 11월 1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덕유산탐방안내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매주 월요일 휴관)

이번 전시회는 불법 채취와 서식지 훼손, 기후변화 등 인간의 편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주제로 제작된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며, 국립공원의 복원사업에 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공감하고 사회적 관심과 참여의 필요성을 전하고자 기획되었다.

작품은 자개공예, 흙패션, 네일아트, 소형가구페인팅, 뜨개, 민화, 도예 등 총 7개 분야 65점으로 구성되었으며,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의 장애인·노인 이용자 43명이 작가로 참여했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가 전북 지방환경청, 현대자동차와 맺은 업무협약이 일환으로, 사회공헌 기금 지원을 받아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각자의 방식으로 사라져가는 생명의 이야기를 표현하여 관람객에게 자연과 생명, 그리고 공존의 메시지를 전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